

연중 제11주일

기도서 371 편

제1독서 : 사무 하 12,7-10,13

제2독서 : 갈 라 2,16,19-21

복 음 : 루 가 7,36-8,3

숲 정 이

발행원인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총판 리국
------	--------------------------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0041 · 0042 · 0043

□ 강론

용서의 하느님

박 찬 길 신부



바리사이가 가운뎃 한 사람이 예수께 청하여 자기의 한 끼 식사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사이의 집에 들어가 상을 받으셨다. 마침 그 도시에서 죄인으로 소문난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예수께서 바리사이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향유가 든 우함을 들고 왔다. 그녀는 예수 뒤켠 발치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며 향유를 발라 드렸다. 이런 그녀의 행동에 바리사이와 사람들은 속으로 불만을 품고 있었지만, 예수께서는 그녀가 오랫동안 당신의 발에 손을 대는 것을 내버려 두셨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것은 곧 하느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느님은 용서와 자비로 당신의 권능을 크게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하느님의 행위는 용서이다. 예수께서는 하느님이 당신께 기대하시오 당신의 마음을 통해 결정하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것이다.

예수께서 용서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말은 당신의 특권과 또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대리권을 표시한다. 즉 “네 죄는 용서받았다(루가 7,48)”. 이 수동형 문장은 하느님을 호명(呼名)하지 않으면서 그분을 지칭하는 유다교의 어법이다. 예수께서 행동하시고 용서를 선포하실 때 하느님께서만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의식하셨음을 우리는 이 수동형의 문장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 수동형의 문장을 통해 예수께서는 하느님의 행동을 재현하시고 그 행동에 대한 증인이 되신다. 그런데 예수께서 행하시는 것은 당신 자신의 업적이다. 예수께서 인간을 용서하시는 하느님의 모습과 체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지 않으셨다면 하느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또한 하느님의 용서가 소개되지 않았다면 예수의 용서는 과거를 잊으려는 마음, 화해와 친결과 아량을 뜻했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오랫동안 억압되었던 하느님의 사랑을 당신의 용서로 드러내 보여주셨다. 이제 인간은 자기의 과거를 돌이켜보거나 자기의 죄책감이 어느정도이며 무엇에 대한 죄책감인지를 새삼스럽게 들추어내지 않아도 된다. 그가 저지른 악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그 흉악한 결과가 계속되더라도 죄인을 받아들이는 예수를 봄으로써 당신의 자녀들을 되찾으시는 하느님의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 이 기쁨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악을 휩쓸어 가버린다. 인간은 이 한없는 기쁨을 누리고 이 기쁨이 예수와 죄인들과의 만남에서 솟아남을 목격하게 되었다.

(전동천주교회 보좌신부)



나라 사랑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선 세계에서 가장 큰 개선문이 서 있다. 50m의 높이에 45m의 폭으로 그 웅대함을 자랑하는 개선문은 세계를 향하여 12개의 넓은 길을 바퀴살처럼 내뻗고 있다. 가히 위대한 프랑스를 상징한다고 하겠다. 나폴레옹 군대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이 개선문 밑에서는 지금도 무명용사를 찬양하는 영원의 불이 타오르고 있다. 이 일대의 광장은 재향군인들의 광장이 되었고, 지금도 수많은 시민들이 무명용사들을 찾아 경의를 표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프랑스의 위대함을 다시 느낄 수 있다.

누가 애국자인가? 위대한 정치가나 장군만도 아니다. 불세출(不世出)의 지도자나 저명한 사상가만도 아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이 다 애국자들이다. 땀방울에서 발을 매는 촌부로부터 시작해서 고지를 지키다가 숨겨간(뒷날에 그 아무도 기억해 주지 못하는) 무명용사에 이르기까지 나라를 사랑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애국자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명용사들을 기리는 에트랄 개선문에서 프랑스의 위대함을 다시 배운다.

현충일과 6·25사변을 기억하는 이 6월에 우리는 애국의 참 뜻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진정한 애국정신이 소위 안보차원에서 요망되는 것이다. 거짓없고 꾸밈없는 나라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정치 지도자들의 약속을 순수하게 받아 출수 있는 풍토, 교사들의 꾸밈없는 가르침이 당연한 사회에서 애국의 싹이 틈다. 이러한 때에 국민들은 누구나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 잠기게 된다.

거짓없는 사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사회,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조그마한 일을 값지게 생각하는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숲 정 이 산책



200주년과 나의 참여

정승과 하인의 차이

강 기 석(그레고리오)

성당에 나가는 신자라면 내년이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을 기념하는 해라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200주년의 의의를 아는 신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매우 회의적이 아닐 수 없다.

이 땅에 구원의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한지 200년, 어쩌이 뜻깊은 해를 그냥 보낼 수 있겠는가. 사실 따지고 보면 100주년은 아직 종교의 자유마저 누리지 못하던 박해시대에 맞았으나 당시의 신자들은 감히 기념할 엄두도 못내었고, 150주년은 일제치하에서 맞았으나 당시의 신자들로서는 제대로 기념할 여유조차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200주년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종교의 자유와 민족의 독립을 얻은 후에, 실로 처음으로 기념하는 역사적인 것이다.

이처럼 뜻깊은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과 행사가 전국적으로 또 우리 교구 내에서 준비되고 있음은 매우 기쁜 일이고 또한 마땅한 일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 걱정도 없지 않음이 솔직한 심정이다.

많은 신자들이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던 조선교구 설립 150주년 신앙대회를 생각하면서 200주년인 내년에는 교황님을 모시고 더 성대한 신앙대회를 치를 기대감에만 부풀어 있는 것 같다. 어쩌면 하늘에 나타났던 십자가 이상의(?)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단순히 200년의 햇수를 기념하자는 것이 200주년의 의의가 아니다. 과거의 보람을 되새기보다는 미래에의 사명을 다지는데에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 번 하고 끝나버리는 행사나 사업이 아니라 미래의 한국교회사를 이끌어 갈 원동력을 창조해야 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하느님의 섭리에만 맡기는 수동적인 신앙인으로 머물러서는 안된다. 사회는 눈부신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그저 제대만을 향하여 두 손을 합장한 채 가만히 앉아 있어야만 되는가. 지나온 과거에 대한 냉정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만일 200주년을 기념함이 이 땅의 하느님 백성이 쇠신하는 계기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빛을' 비추어 그 얼굴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지 못한다면 모든 기념행사나 사업은 한낱 헛된 장식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200주년을 참되게 기념함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영광된 사명임을 자각해야 한다. 그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성직자나 수도자나 평신도만이 떠맡아야 할 일이 결코 아니다. 우리 모두 서로 해야 할 일을 찾고 함께 참여하자. 나 개인이 쇠신될 때 온 교회가 쇠신될 수 있음을 인식하자.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사는 길이 고생을 면하는 길인가, 곧 좀더 편히 사는 것일가를 생각 하게 된다. 우선은 영리하고, 눈치도 빠르고, 요령도 터득하면 인생을 다소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눈치와 요령은 문제가 있다. 눈치가 빠르고 재치있는 사람은 자칫 길 똑똑이가 되기 쉽고 잘하면 중간치기는 될 수가 있겠지만 결코 위업을 이루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옛날에 덕망도 있고 경륜도 있는 한 재상이·살았다. 그런데 이 정승은 늘 가슴앓이로 고생을 하고 있었다. 그 정승은 언제 그 증세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청심환을 장만해 두고 장복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정승이 뜰을 거닐고 있는데 한 하인이 몸을 뒤틀며 마당에서 응크리고 있었다. 정승이 그 하인의 증세를 살펴보니 그는 자신과 꼭 같은 병을 앓고 있었다. 재상은 급히 자기가 먹는 그 청심환 한 알을 그에게 주었다. 약을 받아든 하인은 그것을 먹으려고 자기의 방에 돌아 왔으나 그것을 싹쓸 먹을 수가 없었다.

우선 대강 마님의 파스한 사랑에 대하여 고마움과 황송함을 느꼈지만, 그 하인으로서 높은 분이냐 먹는 그 귀한 약을 자기 같은 사람이 먹기에는 아깝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약을 먹지 못하고 머뭇거리던 하인은 그것을 들고 약방에 가서 팔았더니 자기가 먹을 약을 몇 첩 짓고서도 용돈이 두둑히 남더라는 것이다.

이 소문은 금새 하인들 사이에 퍼졌다. 눈치와 요령만으로 살아온 하인들은 좋은 거리가 생겼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술 값이 떨어질 무렵이면 그 녀석을 시켜 대강마님 앞에서 엉크름을 떨었으며 그때마다 마님은 그들의 속셈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무런 의심도 없이 청심환을 내주었고, 하인들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돌아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횡수가 많아짐에 따라 안방마님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남편에게 사실의 자초지종을 알렸다. 부인은 남편이 노발대발 할 줄 알았지만 대답은 오히려 태연하기만 했다. 부인이 그 연유를 물었더니 그 대답하는 말이—

“일국의 재상이 그렇게 잘아서 뒤흠렸으. 부인은 너무 걱정하지 마오. 어차피 약은 아픈 사람의 입에 들어갔을 테니까”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 우직한 대답이 정승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되며, 눈치로 만족하게 살면서 회심의 미소를 띄우고 돌아간 하인들은 영원한 하인으로 일생을 마쳤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과연 요령과 진실은 어느 것이 더 값진 것인가를—
(김계 천주교회)

해외여행 업무개시
국제여행사 개설

전 일 관 광

전 화 ⑥ 6 6 6 6 ~ 8

대한항공 국내외 대리점
설악산·제주도·전국명승지
성지순례(국 내외)안내

독일 치질약 재입하
하 이 덴

여드름 치료제 입하

전주 시민약국

☎ ④ 0009 · ③ 3338

약사 김 병 의(마벨로)

금·은·보석·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우집!

금 보 장

장(방지거) 채(마리아)

☎ 6-4989(사구팔구)

최신 컴퓨터 조정기 특설

* 교형 자매님들께
특별봉사를

주부 슈퍼 마켓

야채류·식료 잡화 일절
신속 배달함
(이리 북부시장 내)

☎ ③ 7 1 0 7

박 찬 희(논나)



□ 교구 사제 인사 이동(6월 11일자)

이 상 호 신부 가시는 곳-휴양(해마라기 농장) 제시던 곳-삼례 주임
 한 기 호 신부 가시는 곳-삼례 주임매리 제시던 곳-중앙 수석보좌

□ 한국 천주교 200주년 기념

무료 개안수술에 관한 안내

200주년 기념사업부는 종교에 관계없이 모든 영세민 실명자들에게 ‘빛’을 찾아주기 위한 자선사업을 벌이고 있다. 주위에 생활이 어려워 수술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선을 바란다.

1. 대상자-①의료보호 2종 대상자(녹색 진료증 소지자) ②의료봉사 진료권 소지자 ③진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영세민
2. 개안수술의 종류-수술을 통해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다음 질환(백내장, 녹내장, 각막질환-안구 기증이 있는 경우, 작막 이식 수술이 가능함)
3. 개안수술의 신청 절차-수술환자는 신청서에 다음 기관장 등의 추천을 받고 안과의사(환자가 임의 선택)의 수술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받아 서울 성모병원 원무과 담당자에게 신청함. ※ 추천 기관 및 단체-교회 성직자(신부, 목사), 수사·수녀, 동장(도시지역)·읍면장, 사회 복지사업 단체의 장
 ※ 전북지역의 지정 의료기관은-서울 명동 2가 1 성모병원입니다.
 ※ 수술 신청서는 천주교 전주교구청 사무국에서 배부합니다. (전화 0041-3)

□ “어린양들의 모후” 꾸리아 창설

전주 파티마의 모후 꼬미씨을에서는 6월 6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초·중·고 레지오 단원 연수회를 120명이 참석하여 성대하게 개최하고 “어린양들의 모후” 소년 꾸리아를 창설하였다. 박 관길(전동 보좌). 지도 신부님을 모시고 초대 단장에 김 치영 선생님, 부단장에 이 강배, 서기에 박 은규, 회계에 김 남순을 선출하였다.

김 치영 단장은 앞으로 각 본당의 요구가 있을 시 각 본당을 순회하면서 초·중·고 전체 학생에 대한 연수회를 꾸리아 주관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는 요지의 인사를 하였다. 이날 연수회에 참석한 본당 중 많은 인원이 참석한 본당은 오룡동 18명, 장인동 13명, 덕진 10명이었다.

□ 「베소라 성서」 제 2기 강좌

작년 5월 11일에 개강되었던 베소라(복된 말씀) 성서 강좌는 모세 5경을 중심으로 다루었으며, 말씀에 주리고 목말라 하던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였다.

본 제 2기 강좌에서는 역사서를 배우게 된다. 이번 강좌는 6월28일(화) 오전 9시30분에 중앙성당에서 1일 피정도 있으며 모집은 수시로 한다.

일시-매 화요일 저녁 7시30분 강사-김 정원(토마스) 신부

장소-가톨릭 센터 3층 회비-월 1,500원 교재-20,000원(구입은 자유)

□ “말씀과 성령” 1일 초청

당신을 여기에 초대합니다. 깊은 애정과 사랑으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신 그분을 만나려 오십시오.

강사: 유장승 신부, 문정현 신부, 김정원 신부 일시: 28일 오전 9시30분-오후 6시30분 장소: 전주 중앙성당 준비물: 필기도구, 성가책, 성서 회비: 1천원 (중식 각자 지참) 주최: 베소라 성서 연구원, 전화 (72)4978 후원: 전주교구 사무국, 교육국

포심이(514) 김병오

광주대교구 사제단이 광주사태 3주기를 맞이하여 성명서를 발표했오!

찬성하면 박수를... 딱딱 짹짹

전주교구 정의평화 위원회에서 '오성회' 사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오

찬성하면 박수를치지 마시오! 쿵쿵 댕댕



코오롱 맨☆스타 전주특약점

<호성맨하탄>

▲국민카드·신용카드 가맹점

전주시 중앙동 3가 26

(중앙동 풍년제과 앞)

전화 08415

김 돈 중(아드리아노)

K. S. 표시 허가공장 신흥 콘크리트

☎ 06016 06415
 대표 이교성(요셉)
 시멘트, 벽돌, 블록, 보도블록, 철근 콘크리트
 근거, 철근 콘크리트판

장례 수의 센터

(한복전문)
 신자들의 많은 이용 바람
 연락처 09193
 0915
 주-배 바울라(당녀)

유치원 교재 교구 전문 중앙 교육사

전화 (72) 8818번
 이 승 호(다마소)
 위치: 전동 터미널 앞

마춤·대어
 웨딩드레스·약혼복·선주복·부케·신부화장
 비디오 촬영

신부의 집

동서광복로 서울신탁은행 앞
 전화 06951
 정인기(누지누)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 **축! 검진:** 이리 청인동 분당
- 1. **축! 가톨릭 센타 예비자반** 영세: 영세식-18일 오후 8시, 주례-주교님
- 2. **200주년 교구 사목회의:** 20일 오전 10시, 대상-신부·수녀·평신도 대표 2~5명, 장소-가톨릭센타
- 3. **J·O·C 연수회:** 18일~19일, 장소-가톨릭 센타
- 4. **부부 사도직:** 19일 오전 9시, 장소-가톨릭 센타
- 5. **중·고학생회 회장단 연수회:** 19일 오전 9시30분~오후 5시, 대상-각 분당 회장단
내용-하기수련회 및 산간학교 준비, 회비-1천원, 장소-센타
- 6. **꾸르실로 빨랑카 요청:** 재미 교포를 위하여, 교구 꾸르실로 사무국에서 접수함
- 7. **축! 영명:** 성 안토니오(13일)-1천 영균·양 재철 신부님

(중앙)

주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안철문
사도 회장 김인협
전화 ①711~3

- 1. **성전신축 모금 위한 미술전:** 서양화가-김춘식 화백 김태사, 기간-22일~26일, 장소-가톨릭센타
- 2. **한기호 신부님 이동:** 삼례분당 11일 부임
- 3. **200주년기념 비엔나 슈베르트 2중주의 밤** 27일 오후 7시30분, 장소-중앙성당
- 4. **설서피절:** 주례-말씀과 성령, 3편 참조
- 5. **성지순례:** 19일, 장소-미리내, 대상-레지오 단원
- 6. **기증:** 서울주단 김안토니오, 애병회에 위생복 4벌
- 7. **성전 신축헌금 신인:** 이강노(10만원), 장수택(20만원), 강수원(3만원), 백일명(10만원), 강희진·성미라·원길정(각 2만원), 오점례(1만원), 이숙정(12만원), 조순희·이창설(각 10만원), 김용석·정재희(각 5만원), 장세권(1만원), 추가신입: 강복례(50만원, 추가20만원), 임주택(15만원, 추가50만), 김철(100만원, 추가50만원), 강정숙(60만원, 추가30만원), 신입누계: 182,917,600원, 납입누계: 57,952,119원
- 8. **검진사진:** 사무실에서 찾으세요 값-1매 2천원
- **지난주 봉헌금:** 773,706원 **교무금:** 333,500원
특별헌금: 집축성 감사헌금 신요한 20,000원

(노송동)

신부 ①0969
수·사 ①7032
주임 신부 김웅태
보좌 신부 나춘성
사도 회장 이홍재

- 1. **금주의 구역회합:** 13일-중노2가 9구역, 14일-인후동 2·3·4·6구역, 15일-중노1가 1·2·5·6구역·중노2가 4구역, 16일-인후동 7·8구역, 빠짐없이 참석
- 2. **구리아 회합:** 19일 오후 2시
- 3. **성전 청소담당:** 13일 오전 10시 자비의 모후Pr
- 4. **인후동 각 구역장 명단:** 1구역: 구역장-양관철, 부구역장-진금옥, 2구역: 구역장-강하녀, 부구역장-김상숙, 3구역: 구역장-최경자, 부구역장-박명진, 4구역: 구역장-김진숙, 부구역장-박순남, 6구역: 구역장-이재열, 7구역: 구역장-박규갑, 부구역장-김대홍, 8구역: 구역장-최명자, 부구역장-강영배
- **지난주 봉헌금:** 325,050원 **아파트:** 55,430원
교무금: 125,000원, **아파트:** 10,000원

(덕진)

신부(3) 2182 주임 신부 김봉희
전화 수녀(72) 1222 보좌 신부 정양현
사무(72) 6259 사도 회장 양상열

- 1. **성모회 윌레회:** 공식미사 후
- 2. **구리아 윌레회:** 오후 2시, 교육관에서
- 3. **복사단 모집:** 중2학년~국립학교 2학년까지
분당 사무실에서 연중 접수
- 4. **분당내 음악인 모임:** 17일 저녁 8시, 참여 바람
- 5. **첫영성체반 교리:**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 6. **단체별 분당 청소일정**
매일 첫토요일-한성회, 둘째 토요일-청년연합회, 셋째 토요일-한석회·까리마스 자모회, 넷째 토요일-진복회·성심부녀회, 다섯째 토요일-주일학교
- 7. **반석회:** 다음주에 모임 있습니다
- 8. **유아세례:** 4대축일 전후, 8월초 예정
- **지난주 봉헌금:** 376,255원 **교무금:** 387,500원

(복자)

주임 신부 권영균
전화 ①5238번 사도 회장 조성호

- 1. **구리아회:** 오늘 오후 2시
- 2. **성우회:** 오늘 공식미사 후
- 3. **유아세례:** 14일, 저녁미사
- 4. **4지구 학생제육대회 3등:**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5. **지난 4일 영세(20명):**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6. **복자신협 관광교육:** 22일 오전 8시 출발, 신착순, 도시락 지참, 장소-신협 연수원·동학사·유성운천 회비-5천원
- 7. **환영! 마니피카트 합창단:** 19일 공식미사에 성가합창
- 8. **금주전례:** 해설-김재식, 독서-①유기순 ②천 건 차주전례: 해설-유덕열, 독서-①김성원 ②박상기
- **지난주 봉헌금:** 504,380원

(서학동)

전화 ①2276번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한철수

- 1. **영세식:** 24일(성요한 세자 대축일) 저녁 8시
- 2. **영세자 특별교리:** 14일~22일까지, 저녁 8시30분
- 3. **반장님 윌레회:** 오늘 공식미사 후
- 4. **할머니 모임:**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 5. **성심회 모임:** 13일 오후 2시 분당 회의실
- 6. **사제 양성 후원회:** 김재열·김청운·김순덕·임우환·박미란·윤정순·강귀선·임양주·최천대자·김정수·김미순·배복례·최홍구(39명)
- 7. **구리아 모임:** 오늘 오후 2시 분당 회의실
- 8. **차주전례:** 독서-①김나섭 ②이정빈
신자들의 기도-신영창·임금자·권학열
- **지난주 봉헌금:** 275,225원 **교무금:** 256,200원

(숲정이)

전화 ①7366 주임 신부 김종길
수·유 ①9567 사도 회장 김수립

- 1. **첫 영성체:** 19일(공식미사 중), 첫교백-18일
- 2. **구리아 윌레회:** 오늘 공식미사 후
- 3. **성모회 윌레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 4. **구역 정·부회장 모임:** 다음주 공식미사 후
- 5. **새벽미사 안내:** 일·월·수(5시30분)
- 6. **금주전례:** 해설-홍성주, 독서-①황현도 ②김남근
기도-김경주·허우순
차주전례: 해설-홍성주, 독서-①선종현 ②이철수
기도-홍정모·송우호
- **지난주 봉헌금:** 156,760원 **교무금:** 283,900원

(전동)

신부 ①6208 주임 신부 김병길
전화 사무 ①3222 보좌 신부 박찬열
수녀 ①8347 사도 회장 이종두

- 1. **사도회·자모회·장우회:** 공식미사 후
- 2. **성마리아 구리아:** 오후 2시
- 3. **성화회·포미시움:** 다음주
- 4. **글로리아 성가연습:** 매주(목·금) 저녁미사 후
- 5. **월요기도회:** 매주 월요일 저녁미사 후
- 6. **차주전례**
아침미사: 해설-박종구, 독서-①김동연 ②김창선
공식미사: 해설-양현홍, 독서-①이영희 ②신일균
저녁미사: 해설-정양수, 독서-①정동희 ②황선중
- **지난주 봉헌금:** 596,310원 **교무금:** 259,000원

(파티마)

신부 ①0915 주임 신부 김영일
전화 수녀 ①4804 사도 회장 황희상

- 1. **교구청 사목방문:** 23일, 사도회임원 전원 참석 바람
-사도회장단·부차장·감사·교문·신심단체장
- 2. **많은 분들이 「교무공 월납제」를 잘 하시는데 잘 앉으시는 분과 전원 관심없는 분** 구약「말라기아서」 3장 1-12절을 꼭 한번 읽어 보십시오
- 3. **첫 영성체반:** 부모님들은 특별 관심 바람
18일 오후 5시30분 미사에 영성체를 할 예정
- 4. **파티마 관내에 거주하는 신자분 교적이 없으신 분:** 사무실에 연락 바람
- 5. **고백성사 보실 분:** 미사 30분전에 오세요
- **지난주 봉헌금:** 242,640원 **교무금:** 286,000원
감사헌금: 무명인-10,000원